

청자골 어린이 한마당 성황...아이들 주인공 된 하루

무안군, '청렴 소통 다짐의 날' 두 번째 운영

강진군이 어린이날의 맞아 최근 강진국민체육센터 제1,2실내체육관에서 제28회 청자골 어린이 한마당 잔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약 2,000여 명의 어린이와 가족들이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강진청소년지도위원회(회장 김정혁)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는 아동친화도시 강진을 대표하는 아동 축제로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사했다.

이번 행사는 기념식 없이 진행돼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고 즐길 수 있도록 놀이·체험·먹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됐다.

행사장에서는 버블쇼, 레크리에이션, 지역 청소년 공연(사물놀이, 댄스, 난타, 밴드), 드론축구 시범경기, 말차쇼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이어졌다. 또한 소방·경찰 체험을 비롯해 풍선아트, 데코덴키링

만들기, 킥캡만들기, 업사이클링 체험, 교통안전 AR 체험 등 교육과 놀이를 결합한 20여 개 이상의 체험 부스가 운영되어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며 즐길 수 있었다.

특히, 쇼플라티에, 특수분장, 웨어러블 체험, 이모티콘 제작 등 진로 체험, 카네이션 만들기과 카드쓰기 프로그램은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이외에 다양한 에어바운스 놀이 공간, 가족 쉼터와 오락시설, 다양한 먹거리 부스(주먹밥, 떡볶이, 팥튀기, 달고나, 아이스크림, 삼각김밥)가 마련돼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간식과 함께 온 가족이 편안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청자골 어린이 한마당 잔치는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아동 중심 축제로 자리매김하며, 강진군이 추진 중인 아동친화도시 정책을 상징하는 대표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전운재 기자



제28회 청자골 어린이 한마당 잔치에서 체험을 하고 있다

/강진군 기획홍보실 제공

무안군은 5월 4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소통 다짐의 날'을 운영하고, 참여와 실천 중심의 청렴문화 확산에 나섰다.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청렴 실천을 조직 전반에 정착시키기 위한 정례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형식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청렴 의지를 공유하고, 조직 내 청렴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참석자들에게 행운권을 배부한 뒤 추첨을 통해 선정된 직원들과 부군수가 함께 청렴 퍼포먼스에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청렴으로 실천하는 공정과 신뢰의 공직문화, 함께 만들어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갑질·차별·불공정 등 부정 요소가 적힌 풍선을 터뜨리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서용운 기자

KR갤러리에서 개최되는 윤재천 작가 첫 개인전



윤재천 개인전 전시 포스터

/목포 시청 제공

목포 KR갤러리(관장 오상원)는 오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특별기획전 <인간, 희망> 윤재천 생애 첫 개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작가 윤재천의 생애 첫 개인전으로, 인간의 내재적 감정 중 '희망'을 주제로 그의 작업 세계를 본격적으로 선보이는 자리다.

전남 장흥 출신의 윤재천 작가는 장흥중학교와 장흥고등학교를 거쳐 국립목포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했으며, 인간의 내면 감정과 존재

에 대한 성찰을 회화로 풀어내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인물 중심의 화면 구성과 상징적 이미지 표현을 통해 감정의 형상을 시각화하는 것이 특징이며, 종교적 사유와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희망', '자각', '구원' 등 인간의 본질적 감정을 탐구해 왔다. 특히 이번 전시는 작가의 생애 첫 개인전으로, 그동안 축적해 온 사유와 작업의 흐름을 집약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박성태 기자

함평군, 제104회 어린이날 기념 '어린이 한마당 잔치' 성료

전남 함평군이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함평군은 5일 "이날 함평나비대축제가 열리는 엑스포공원 주무대에서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개최한 '어린이 한마당 잔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의

꿈을 응원하고 가족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3부로 진행된 행사의 1부는 태권도 시범단의 역동적인 공연과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돼 아이들의 흥을 돋웠다. 2부 기념식에서는 모범 어린이 11명에게 표창이 수여됐으며, 이상의 함평군수와 정철희 함평군의회 의장 직무대리는 인사말을 통해 아이들에게 격려와 축하의 뜻을 전

했다. 이어진 3부에서는 마술 공연과 핑크퐁 아기상어 심어롱쇼가 펼쳐져 어린이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마음껏 웃고 뛰놀며 꿈을 키워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용운 기자

영암, 영유아 대상 '북스타트' 운영...책으로 시작하는 첫걸음

영암군이 영유아의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해 '2026년 북스타트 운동'을 본격 추진한다.

영암·삼호·학산도서관은 5월 6일부터 영암군에 거주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령별 책꾸러미를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북스타트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생애 초기부터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돕는 독서문화 운동으로, 발달 단계에 맞춘 그림책과 가이드북이 함께 제공된다. 책꾸러미는 출생부터 취학 전까지 연령별 단계로 구성되며, 「꽃아, 안녕!」, 「농사람은 농사람」, 「가방을 열면」 등 발달 단계에 맞춘 그림책과 가이드북이 함께 제공된다. 또한 5월 16일부터 22일까지 '북스타트 주간'을 맞아 그

림책 전시와 부모교육, 책놀이 프로그램 등 다양한 독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최복용 영암군 인재육성체육과장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책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가명 기자

신안,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간 운영

신안군은 202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은 기간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일반대상자 7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8월 31일까지) 이내 분납 가능하다.

또한 매출액이 감소한 소규모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 및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2~3개월 직권 연장된다. (8월 31일까지, 신고는 6월 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완료) /박성태 기자

가고싶은 멜로우시티 장성호 수변길

황금빛출렁다리

수변 데크길(왼쪽)

수변 데크길(오른쪽)

멜로우 시티 Jangseong 장성군